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보내는곳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B-1

받으실분 :

1993년 12월 22일, 대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던 시위가
100번째를 맞이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보인다.

제 5 호

찾 아 보 기

발행일 1994년 4월 11일
발행인 이호재, 윤정옥, 김희원
발행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홍보위원 이미경, 오종예, 김순자, 정명자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B-1
전화 263-2883 팩스 263-2803

2면 - 3면 고소, 고발장 접수 활동 보고
4면 - 5면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 보고
6면 - 7면 정대협활동 93년 결산 및
94년 계획, 활동일지
8면 - 9면 국제활동 소식
10면-12면 국회의원 간담회, 수요시위,
할머니 소식
13면 일정 소개 및 후원안내

고소, 고발장 경과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의 요구 높아져

1994년 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7인은 일본검찰청에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예상대로 일본 검찰청은 이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정대협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자 처벌하라'는 요구가 수요된 것은 1992년 12월 정대협 결산 대표자 회의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1994년 2월에서야 가능했던 것은 국내에서 전범처벌의 경험 이 없고 일제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번 고소, 고발장 제출은 전범처벌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큰 의의가 있었다. 또한 한편으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금전적, 물질적인 보상 차원의 문제로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일본정부는 한일간의 물질적 보상은 이미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일본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여 제반 준비를 진행하여왔다. 2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2월 6일, 정대협 대표(이미경총무, 김신실위원, 김혜원위원, 임정덕 간사, 박원순 변호사)와 할머니 대표 6인(강덕경, 김순덕, 박두리, 박옥연, 이영숙, 문필기)이 출국하였다.

2월 7일 11시, 일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본쪽 변호사 6인이 기자회견과 고소, 고발장 접수시 배석하였다.) 2시경에 일본연대단체 회원들과 대열을 정비하여 일본검찰청으로 향했다. 검

찰청 앞에서 검사와 면담을 하였는데 검사는 이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 하였다. 또한 고소, 고발장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채 형식상의 미비점을 들어 접수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피고발인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죄명이 불분명하다. 일본내에 이를 처벌한 국내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정대협측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자 검사 또한 납득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취한 후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고 접수할 수 없다며 들어가려 하였다. 또한 정대협에서 계속 설명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자 사본만을 가지고 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정대협측에서 일본검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는가하고 문자 답변을 회피하였다.



〈지난 2월 7일 접수거부에 항의하여〉

형식상의 절차는 문제삼아 접수거부하여

1시간여의 숨막히는 논쟁 후 검사는 약속이 있어서 이 자리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며 일어서려하자 그러면 이것을 일본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를 거

계속 입원해야만 한 적도 있다. 전할머니는 1940년 17세에 끌려가 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해왔다. 결국 홀로 사시다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 사망하였다. 14일에 화장하여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분향소가 설치되었다가 18일 영결식을 가지고 망향의 동산에 묻히었다. 생존해있는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고령에다 건강상태에 안 좋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피해자들이 더 살아있을 때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살고 계시는 전개화 할머니 초청 예정

지난 1월 김원동씨(아이디엄 이사)가 정대협에 중국에 살고 계신 전개화 할머니를 한국에 초청하는 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 김씨는 1993년 12월 업무차 중국 남경 지방 출장시 남경대학 역사연구소에 재학중이니 한국인유학생(박선영)을 통하여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고국에 가보고 싶은 이 할머니의 원을 풀어주기로 결심하고 상도교회 및 정대협과 논의하였다. 이 할머니는 현재 중국 안휘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1939년 일본인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되다가 귀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협에서는 2월 법무부에 이 할머니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내었다.

증언집1 일어판 간행, 영어판 간행 예정

93년 2월 출판된 증언집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신대연구회, 한글)이 일본에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明石書店, 1993년 10월 30일, 3,000엔, 중군위안부 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 편역) 곧 영어판 (영국의 CASSELL출판사) 으로서도 출판될 예정이다.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조흥은행 304-01-120125 김신실
- 국민은행 813-01-0182-492 김신실
- 농협 053-01-176711 김신실

*점선을 잘라서 본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대월 20,000원 혹은 년 10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본회의 활동소식과 할머니 소식, 행사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름

전화

주소

.....

.....

후원 방법 1) 월회비 ()

2) 년회비 ()

본인은 귀회의 활동에 동참하고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인

UN 인권위원회 참석 보고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1월 31일부터 3월 11일까지 6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0차 UN 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기 위해 본인과 김은경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이 2월 14일-26일 까지 2주간 참석하였다. 정대협은 92년 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UN에 제기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국제여론 조성에 노력해 왔다.

이번 인권위원회 참석의 목적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제도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93년 8월의 제45차 인권소위원회에서 '전쟁중의 노예제 특별보고관'으로 Linda Chavez씨를 임명한 것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아시아 각국과 연대하여 민간단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속 홍보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의제 17: 소위원회의 보고'가 토의된 2월 15일과 16일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정대협을 비롯하여 5개 민간단체가 처벌문제를 일제히 제기하였다. 즉 IFOR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AD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TWMAEW (Third World Movement Against Exploitation of Women),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Liberation 등의 5개 단체이다. 정대협은 전과 마찬가지로 WCC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여 공식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중 IFOR는 인권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미리 문건(written statement)을 제출하여 이것이 유엔 인권센터의 사무국의 승인을 얻어 공식문서로 배포되었다.

민간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 독일의 나치친법들이 국제법상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의 원칙에 의해 지금까지 처벌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일본측의 노력을 촉구하고 Linda Chavez의 임명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북한정부의 대표는 진상규명과 Linda Chavez의 승인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강하게 요구하였다.

처벌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인권소위원회의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인 조아네(Mr. Joinet)와 기셰 (Mr. Guisse)의 보고서가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두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승인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도 중대한 인권침해에 포함되므로,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특별보고관이 앞으로 1년후에 제출할 계속적인 연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진전은 93년 6월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시 여성들이 요구하였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이 인권위원회에 신설된 것이다. 새롭게 임명된 이 특별보고관은 3년의 임기동안 여성에게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강간, 아내구타, 성희롱, 강제매춘, 포르노 동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진 성노예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 기대된다. 인권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연구에 그치는 데 반해 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특별보고관은 연구뿐만 아니라 감시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반면 우리가 기대하였던 Linda Chavez 특별보고관 임명승인건은 예기치 않게 보류되어 다시 인권소위원회로 송치되었다. 이는 소위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새로 승인을 요청한 연구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 검토할 것을 소위원

국회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가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 어언 4년째 접어들었다. 국제적으로도 중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같은 피해국인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지역에까지 널리 알려져, 세계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실제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한 국국회에서 거의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본 회와 민주당 정신대대책의원모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교류하고,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그리고 민간운동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2차에 걸쳐 가졌다.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이우정, 김원웅, 원혜영, 제정구 의원과 정대협의 이효재, 윤정옥, 지은희, 이미경, 신혜수, 김신실 등의 실행위원이 참석하였다.

정대협은 국회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건의

정대협은 간담회에서 국회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일 의원들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규모, 동원방식 등에 관한 진상규명은 한국측에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는 식민지 시대 총독부관할하에서 도, 군, 면, 리 등이 강제연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호적과 학적부, 기타 문서들을 조사하면 동원규모라든가, 동원방식 등에 대해 다소 규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하여

한국교과서 개정 논의

또한 정대협은 한국교과서 개정문제를 위해 국

회 교육위원회위원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안하기를 희망했다. 현재 정대협과 일본민간단체들이 일본교과서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 미흡하나마 일본의 교과서는 개정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었고, 호소카와 수상의 침략전쟁 인정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한국교과서는 변함없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 외에도 금번 3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시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도 아닌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 방식으로 매듭지으려고 할 경우 한국정부는 결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김영삼 대통령께 주지시키고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모아가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이우정 의원 등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회차원을 활동을 펴기가 실제로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국회의원들까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93년 12월 22일로 수요시위 100차...

지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정대협 수요시위가 1993년 12월 22일로 100차를 맞이하였다. 매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개된 수요시위에는 그동안 정대협의 회원단체들과 한국의 여러 인권, 사회, 여성, 종교, 문화 단체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4-5명이 매회 참석하였다. 그 동안 수요시위는 할머니들끼리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이 문제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100차 수요시위는 어느 때보다도 아주 추운 날씨였다. 이 시위에는 150여명 참석하였다. 할머니들은 "일본정부는 사죄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적은 머리띠를 손수 만들어 두르고 열심히 구호를 외쳤다. 또한 한복을 차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 94년으로 5년째로 접어들어

90년 11월 정대협이 결성된 이래, 정대협 활동은 94년으로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에는 일본정부의 공세에 밀려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어중간하게 이 문제가 유야무야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책임자 처벌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제도화'를 명확히 하는 데까지 발전할 것인지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정대협은 지난 1월 11일, 정대협 19개 회원단체 대표자들과 실행위원들이 모여 그간의 정대협운동을 결산하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지난 93년 10월 동경에서 열린 제 2차
정신대문제아시아연대회의에서...〉

대표자회의 참가자들은 93년도는 UN 활동, 아시아연대회의 등을 통해 대일본요구에서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표가 더 비중을 가지고 제기되었던 해였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UN에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는가 하면, 할머니들의 생활에서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었으며, 진상규명에서도 지휘명령체계, 강제성 등이 입증되고 할머니들의 성노예 생활상태가 구체적으로 연구진전되는 등 다소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제는 일본정부가 저야 하는 책임의 방식, 즉 범죄자처벌과 정신적, 육체적 배상에 관해서도 구체적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정리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94년에는 UN활동이 결실을 맺고 할머니들과 함께 사회와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책임자 처벌을 법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우리 운동의 대의를 살리는 일, 그리고 기존자료를 정리, 정비하고 진상규명작업을 진전시키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1994년도에 국제활동, 대일본관계, 대한국정부관계, 대국민홍보사업 등 정신대문제 대책활동은 변함없이 긴장되고, 바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케 했다.

구체적으로 1994년도에 해야 할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일본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1) 일본정부에 고발장 제출 2)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에 대한 국내 여론 작업(대화모임, 설명회 개최) 3)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성명서, 질의서 등 발표 4) 수요정기시위 계속실시로 일본정부에 압력행사

■ 국제협력위원회 사업으로 1) 유엔인권위원회,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 인권소위원회 등의 유엔회의에 참석하여 압력활동 계속할 것 2) 년 4회 영문소식지 발간 3)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홍보활동 4) 린다 차베즈 조사활동 협조(영문보고서 및 영문자료 준비) 5) 증언집 영문번역 6) 아시아연대회의 개최(추후 더 논의 필요함) 7) 일본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활동

■ 홍보위원회 사업으로는 1) 격월로 소식지 발간 2) 기자회견의 간담회 3) 자료발간

■ 교육조직위원회 사업으로는 1) 학교, 교회, 단체들의 집회 강연활동 2) 회원단체 조직관리(수요시위 적극 활용) 3) 종교 및 사회단체들 회원단체

오사카 평화를 위한 미사 참석자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색

일본교회는 1983년부터 매년 8월 6일에서 15일까지 열흘 간 "평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일본은 8월 6일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 기념일이며, 8월 15일은 성모승천대축일이자 동시에 제2차세계대전 종식된 날이다. 93년 오사카교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캠페인의 주제로 택하고 필리핀으로부터 할머니 1인과 연사를 초청하여 모임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 후 '오사카 대교구의 평화를 위한 미사 참가자 이름'으로 "사죄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사죄문에서 모든 피해 여성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일본정부가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줌과 동시에 그들을 정당하게 취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할 것을 밝혔다. 이에 93년 12월 오사카 대교구장 바오르 H. 야수다 대주교가 한국주교회의 의장 앞으로 이 사죄문을 보내왔다.

일본의 도라지회모임 회원들 방문

지난 2월 1일, 도라지회 회원들이 정대협 사무실을 방문하여 2월 2일 수요일 수요시위 끝난 후 할머니들과 오찬을 함께 한후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알려졌다. 도라지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라지꽃이 그려진 뱃지를 팔면서 운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도라지회에서 할머니들께 나눠드린 용돈 5만원도 도라지 뱃지를 판매한 수익금이라고 한다. 그 분들의 정성에 고마운 마음을 보내드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을
1월 1일로 여성평화의집으로 옮겼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B-1 100-391
전화: 263-2802 / 팩스: 263-2803

국제 회의 참가

□ 1월 20일-25일, 이미경총무와 김복동할머니가 일본의 부락해방동맹 오키야마연합회의 초청으로 제 5차 오키야마반차별평화국제포럼에 참석하였다. 이 집회에는 한국, 인도, 중국의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2월 5일, 고혜정씨(정신대연구회 회원)가 일본의 오키야마현 교사조합 초청으로 일본에서 강연을 하였다.

□ 2월 11일-12일, 김신실위원, 박옥연할머니가 '중군위안부를 생각하는 모임' 실행위원회(위원장 藤本玲子) 초청으로 일본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 집회는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AWHRC(Asian Women Human Rights Council) 주최로 '아시아여성 모의법정'이 열렸다. 이 폐널은 아시아 여성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한국에서는 이우정의원, 이에자씨(NCC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연자 전도사,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하였다.

□ 4월 2-3일, 일본 '문옥주할머니 군사우편저금 지원모임' 초청으로 김신실위원, 문옥주할머니가 총회와 기념회에 참석하였다.

새 자료 안내

♣ Report of a study of Dutch government documents on the forced prostitution of Dutch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Unofficial Translation -24th Jan. 1994)

♣ Japan and South Korea: the Unfinished Past: E. M. de Man, March, 1993

♣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inal report submitted by Mr.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 Progress report on the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repared by Mr. Guisse and Mr.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resolution 1992/93

가입 적극 권유

■ 할머니복지위원회 사업으로는 1) 할머니교육 2) 할머니 방문자 팀 구성(자매결연 맺기) 3) 할머니 만남보고회 관례화 4) 할머니 상담치료 의사단체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신적 상담치료, 신체에 대한 치료와 기록화

■ 추모비건립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모비건립을 위한 모금활동과 부지마련, 추모비 도안 및 설계

■ 새로이 "여성과 전쟁사료관 건립준비위원회"를 만들어 1) 사진자료, 비디오테잎 수집 2) 할머니들 증언, 현재 생활, 건강상태에 관한 사진 등 할머니관계자료 수집 3) 할머니 사진을 찍어서 보관

■ 재정위원회 사업으로 1) 프로젝트 작성 제출 2) 종교, 사회단체와의 모금활동 전개 3) 뉴스레터의 후원회원 모집 4) 1회 모금만찬 개최

■ 기획위원회 사업으로 국회동향(외무부일위), 외무부(정부) 동향파악, 각 위원회의 활성화(정책 및 사업방향 제시), 법률전문위원회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사업전개

■ 진상규명연구위원회는 1) 한일합동연구회개최 2) 관련문서 연구, 조사활동 3) 증언청취, 채록 등의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일본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의 명명체제와 전체규모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것이 전쟁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23일 김영삼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한 제 111차 수요시위 및 성명서 발표

학 동 일 지

<1993년>

- 9월 5일 일본사회당 야마하나위원장 접견, 서한 전달 (이효재 대표, 이미경총무)
- 9월 8-17일 독일 국제여성대회 ("인간의 존엄-여성의 존엄-전쟁과 공간") 참석 (윤정옥, 지은희, 문필기 할머니)
- 9월 17일 일본 관서대학 학생, 교수 사무실 방문
- 9월 22-24일 나가사키 어머니회 집회 참석 (야마시타 영애, 장덕경, 이영숙)
- 9월 23일 이효재, 윤정옥 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
- 10월 1일 호소카와 수상에게 보내는 위상본정대협 공개서한 위상본포스트지에 광고 게재
- 10월 8일 일본정부, 군인군속 자료 (위안부 10인 포함) 한국정부에 제공
- 10월 16-17일 명동성당 바자회에 양말판매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 10월 21-25일 일본에서 제 2차 '강제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10월 23일 강제중군위안부 문제 대책활동 기금마련 위한 돌국화라이브콘서트(강릉) (지은희 참석)
- 10월 25일 한두레 일본 공연 출국
- 10월 30일 정신대문제 자료집 IV 발간
- 11월 3일 미하원의원 24인 호소가와 총리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서한
- 11월 6일 호소가와 일본 총리 방한 연대집회
- 11월 7-8일 평양국제토론회에 이효재, 윤정옥 공동대표 참석
- 12월 7-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자 처벌 문제로 일본방문 (윤정옥, 이미경 야마시타 영애, 박순변변호사)
- 12월 18-19일 제 2차 한일합동연구회 개최
- 12월 23일 정대협 100차 수요시위

<1994년>

- 1월 11일 결산대표자회의
- 20-25일 제 5차 오카야마 반차별평화국제포럼 참가(이미경, 김복동)
- 26일 고발장 관련 일본단체 설명회 (이미경)
- 28일 민주당 정신대대책위 위원들과 간담회
- 2월 1일 일본 도라지회 방문
- 7일 일본검찰에 일본군'위안부' 책임자처벌 고소, 고발장 접수
- 11일 오카야마 증언집회 참석 (김신실, 박옥연 할머니)
- 9-13일 와싱턴 집회 참석(신혜수)
- 14-26일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신혜수)
- 3월 2일 일본 법무대신, 검찰총장에게 고발장 거부에 대한 항의문
- 10일 민주당 정신대대책위 위원들과 간담회
- 4월 12일 전금화 할머니 사망

미국 정대협,

김영삼 대통령에게 서한

미동부지역정신대대책위, 와싱턴정신대대책위는 1993년 11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공개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김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과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모든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종결되었다."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안된다. 일본에 대한 배상의 권리는 포기될 수 없다.

셋째,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고 전쟁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간 활동에 지원을 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와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는 와싱턴 포스트지에 호소카와 일본총리에 대한 공개서한을 광고하였다.

미국 미네소타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정의구현연합 조직,

활발한 활동 전개...

1994년 1월 19일, 미네소타주에 '일본군 '위안부' 정의구현연합'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미네소타 주의 한국인, 미국인 오늘과 내일센터(The Korean-American Today & Tomorrow Center)대표인 김병문 씨가 지난 1월 23일에 본 회로 알려왔다. 영어로는 Coalition Seeking Justice for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인 이 단체에는 'WHISPER(매춘반대단체)'와 미네소타주 '한국인, 미국인 오늘과 내일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일 첫 사업으로써 이미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각 기관에 보내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를 취합해서 3월말에 일본총리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5월 4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법적책임규명 등을 위한 정신대문제 진상규명과 법적규명을 위한 재정모금찬찬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미네소타주의 각 대학 역사과, 여성학과, 국제관계과 등과 연대하여 순회강연회를 개최하고, 수요시위, 방송출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10월의 집회에는 정대협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미하원의원 24인,

호소카와 일본총리에 서한

지난 11월 3일 미국 하원의원 Patsy T. Nink 의 23인이 일본 호소카와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 서한에서, 그들은 호소카와 총리가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립, 경영에 직접 간여하였고 위안부 모집과정에서도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평가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호소카와 총리에게 전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즉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정부가 2차 대전시 강제 수용당한 재미일본인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한 것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유엔의 노예제와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판매 자료 안내

자료집 I (1991년 3,000원)
자료집 II (1992년 3,000원)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 III (1992년 2,000원)
자료집 IV (1993년 4,000원) - 법률문제에 관하여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가 서울에서 열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전쟁책임자로서는 93년 12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지난 8월 9일, 10일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제1차 한일합동연구회의 연구성과와 과제를 이어받는 후속 연구 작업 결과를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의 생활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전체상,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배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일본의 역사학자, 국제법학자, 변호사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운동을 하는 여성 등 26명과 한국정대협 활동가, 진상규명연구위원회 위원, 법률전문위원회의 위원 등 30여명이 함께 모여 토론하였다. 이번 연구회의 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네덜란드의 군'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 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시아여성들에 대한 군'위안부'범죄의 처벌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종차별임을 확인하였다.

군'위안부'피해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보고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또한 피해자들이 군'위안부' 생활도 인해 받은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해명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즉 일본군'위안부'는 완전히 무권리 상태에 놓여진 '성노예'임이 명백해졌다.



〈93년 12월 18-19일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에서〉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van Boven 교수의 배상의 범주, 즉 진상조사, 개인적 배상을 포함하는 피해회복, 형사처벌, 재발 방지 등의 조치가 '군위안부'제도로 인한 인권유린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제3차 한일합동연구회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신간 종군위안부 문제의 역사학적 구명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에서 일본 전쟁책임자로서는의 발로 쓴 자료집으로 많은 것이다. 군위안소의 개성과 전개과정, '종군위안부'정책입안, 징집, 사역의 지휘명령계통, 위안소의 생활실태, 피해자들의 후유증 등 전반적인 문제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자료이다. (1994년 1월, 3,000원)

...2차한일합동연구회에 관련된 자료는 정대협에 문의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양국제토론회 자료

음사조약의 무효성, 일제의 여러가지 범죄사실,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모색 등의 논의한 평양국제토론회(1993.11.7-8)의 자료를 정대협에 문의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에 요구한 것이다. Linda Chavez의 연구도 새로이 시작되는 연구이므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제동을 건 것은 미국정부 대표였는데, 실상은 소위원회에서 시작될 다른 연구를 제지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애매하게 포함된 셈이다. 그러나 금년 8월의 소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하여 내년 2월의 인권위원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으므로 결국 1년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위원회 참석의 세번째 목표였던 민간단체 설명회는 2월 21일에 개최하였다. 북한, 필리핀, 일본등의 단체와 연대하여 '일본군 성노예 문제: 새로운 행동과 앞으로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하게 벌이고 있는 활동을 설명하고 공동의 운동을 펼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50여명 정도가 참석한 이 모임은 본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폭력 전문가 회의 보고를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책협의회 Indai Sajor가, 평양토론회 및 기타 보고를 북한 종태위(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대책위원회)의 주형순 상무위원이,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 및 처벌문제를 도르카 변호사가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새로운 행동으로서 일본 검찰에 대한 처벌요구에 대해서 한국의 김은경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이, 일본정부의 동향에 대해서는 홍상진, 이성희(한국인노동자 강제연행진상조사단), 그리고 한국국회의원의 새로운 노력에 대해 김원웅의원(민주당)이 발표하였다. 이 설명회에는 일본정부, 네덜란드 정부 대표도 참석하여 지켜보았고,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었다.

김원웅의원은 정대협의 요청으로 이번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민주당에 구성된 '정신대문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모임'의 주도적 인물이다. 민간단체 설명회의 참석자들을 2월 22일의 점심 만찬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아마도 한국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제네바의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지난 2년여에 걸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을 직접 상대해서 요구하고 운동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유엔등의 다자간 무대를 이용하여 일본에 국제적 압력을 넣는 것이 효과적임도 입증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여세를 몰아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엔의 어느 기구든지 가능한 곳이면 모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위싱턴 정대위 활동

위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는 2월 10일 저녁 6시 Georgetown대학교 법과대학 한인학생회(Georgetown Korean American Law Students Alliance)와 The Korea Society와의 공동주최로 '위안부'문제 포럼'을 Georgetown Law Center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동부지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위싱턴을 방문한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이 연사로 참석하여 강연하였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한파로 불순한 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이 참석하였고, 강연회후에는 리셉션이 있었다.

□ 미동부지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활동

미동부지역 정대협에서는 1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제1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일본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는데, 위원들 중 세 사람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3월 1일에는 YWCA, 가정문제상담소, YKAN등과 공동주최로, 제네바 인권위원회에 참여하고 귀국하는 신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정신대문제의 국제화'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에서 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보고하고 국제적 여론화의 추세를 설명하였다. 미동부지역 정대협에서는 금년에 국제공청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10만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 2월 22일, 네덜란드 국회의사당에서 NCD(National on Information and Education) 주최로 회의가 열렸다. 네덜란드의 정부, 군, 민간단체 등의 참가한 이 회의에서 8개의 워크샵중 "Development and Conflict"에서 신혜수 위원장이 20여분간 발표하였다.

입은 김경란씨의 살풀이춤은 추운 날씨를 녹여 집회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가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주면서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후 파고다공원에서 정리집회를 가진 후 해산하였다.

정대협은 94년에도 일본정부가 이 문제해결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 한 수요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100차 수요시위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다.>

94년도 수요시위를 주관해주신 여러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1월 12일 102차 정대협 사무국
- 19일 103차 여성민주회
- 26일 104차 정신대연구회
- 2월 2일 105차 기독교민회
- 16일 106차 기사현, 목협
- 23일 107차 여신학자협의회
- 3월 2일 108차 이화민주동우회
- 9일 109차 기독교학생회
- 16일 110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지금 할머니들은...

▶ 김상희 할머니가 자주 아파서 걱정이다. 지난 1월 30일,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다가 별 진전도 없고, 독한 악때문에 계속 병원에

머무를 수 없어 2월 28일 퇴원하여 홀로 집에서 악한 심장을 보살피고 있다. 한편 이효재 공동대표가 병원으로 문안차 방문하여 할머니를 위로하였고, 퇴원후에는 윤미향 간사가 김상희 할머니 집을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하루빨리 김상희 할머니의 완쾌를 바란다.

▶ 노청자 할머니가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자리에 누웠다고 한다. 몸거동을 못해 할머니 친구분이 함께 기거하면서 몸을 보살피고 있다고.....

▶ 김학순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셨다. 빠른 회복을 바란다.

▶ 나눔의 집에 기거하고 계시는 할머니 중 강덕경, 손판임, 박두리 할머니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문제에 차질이 생겨 세 분 할머니가 당황해 하고 있다. 마포구청에서 영구임대주택입주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등촌동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후 서울시청에서 할머니들은 3년 이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고, 3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우선권이 허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된다니.....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3년은 30년과 같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서울시청 주택과 직원의 대답에 더 이상 할말을 잃었다"고 말씀하신다. 당국의 선처를 바란다.

또 다시 정신대학대사...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

1993년에 4인의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금년 3월 12일, 인천에 살고 계시는 전금화 할머니께서 평소 지병이었던 심부전증으로 돌아가셨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홀로 단칸방에 살아오면서 봄, 가을이면 나물을 캐다 팔고 하고 때로는 새마을 취로 사업에 나가 하루하루 생활을 연명해 오셨다. 지난해에는 병원에 입원하다가 일을 나가지 못해 원세를 낼 수 없어 그대로 병원에

부한 것으로 보아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일본검찰의 거부는 예상한 바였고 정대협에서는 검찰청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개하였다. 검찰청앞에서 간단한 보고집회를 갖고 지하철역까지 시위를 전개하였다.

6시 30분부터 NCC 회의실에서 보고집회를 가졌다. 120여명이 참석한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2월 8일 오전 10시 일본 변호사와 일본 관련단체 사람들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여론화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에 동의하고 일본 검찰청, 법무대신에게 항의문을 보내면서 일본내 입법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ICJ를 통한 재판, 일본내 민사재판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정대협과 피해자 27인은 3월 4일 고소, 고발장에 대한 접수 거부에 대한 항의문을 일본 법무대신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이 항의문에서 일본 검찰의 불성실한 모습에 대하여 비판하고 고소, 고발장에 대한 일본검찰청, 나아가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대협에서는 이후 활동에 대하여 논의중에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시아에서의 전범처벌 요구의 시발로

일본검찰에서 고소, 고발장에 대한 접수 거부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국내외에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전범처리는 그동안 거의 제기되지 못하였고 단순히 물질적 보상 차원을 통한 국교회복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다. 개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방식은 현재 일본 법원에 계류중인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의 재판처럼 일본의 전후처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판도 일본에 대하여 물질적 배상뿐 아니라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전범처벌에 대한 요구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이제와서 전범처벌은 말이 안된다. 다 죽었을텐데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가, 미래지향적 자세로 용서해야한다 부터 시작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물음까지 거의 전범처벌이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린다면 독일 나치 전범인 경우는 전범처벌은 독일 뿐 아니라 여러나라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48년 3월 바르비아 전범재판소에서의 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전범자 처벌 이외에는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전범처벌은 단순히 처벌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전범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의 조치이다. 지금까지 아시아는 인권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전범처벌의 사각지대로 '전범처벌'이라는 국제조류에서 고립되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정대협의 책임자 처벌의 요구가 아시아에서보다 유엔이라는 공간에서 더 빨리, 더 정확히 공감을 얻은 것에서도 보여진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전범재판소나 전범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전범자에 대한 사면이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알림

정대협 새 총무 댄아....

그동안 수고해오신 이미경총무는 9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회장을 맡게되어 1994년 3월 15일부터 권희순목사가 새 총무로 일하게 되었다. 권목사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아 목회활동을 해왔고 신학 박사 수료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한편 이미경 전 총무는 유족자위원이 사임한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